

한변, 2021. 10. 29.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방송(TBS)의 부당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제기

1. TBS는 예산의 74~77%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세금(2020년도 총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 2021년도 총예산 540억 원 중 약 400억 원)으로 충당해왔다.
2.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이므로 방송법에 교통, 기상, 교양, 오락프로그램만 허용되며, 보도프로그램의 제작, 송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TBS는 보도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1(일) 합시다 캠페인 등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고,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프로그램으로 역대 최대 법적 제재를 받았다.
3. TBS는 출연자에게 회당 30~40만 원, 최고 수준의 경우도 회당 70만 원 정도인 관행을 무시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회당 200만원 이상, 연간 5억 원 수준의 출연료는 부당하게 과도한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4. 이처럼 TBS는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해왔고, 특정정당 홍보매체 수준으로 전락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한변은 2021. 5. 11.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김태훈 명예회장을 청구인 대표로 하여 서울시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요구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보안을 통해 19세 이상 서울시민 합계 512명의 서명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들 중 174명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조례가 정한 주민수 200명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을 들면서 TBS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5. 이에 한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러한 직무유기적 행태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 11.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